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 – Sermon Notes
Title: "Genesis 26 – The table of nations – Part 2"
Scripture: Genesis 10:13-32
Date preached: June 28th 2026

Scripture: Genesis 10:13-32

13 Mizraim begot Ludim, Anamim, Lehabim, Naphtuhim, 14 Pathrusim, and Casluhim (from whom came the Philistines and Caphtorim).

15 Canaan begot Sidon his firstborn, and Heth; 16 the Jebusite, the Amorite, and the Girgashite; 17 the Hivite, the Arkite, and the Sinite; 18 the Arvadite, the Zemarite, and the Hamathite. Afterward the families of the Canaanites were dispersed. 19 And the border of the Canaanites was from Sidon as you go toward Gerar, as far as Gaza; then as you go toward Sodom, Gomorrah, Admah, and Zeboiim, as far as Lasha. 20 These *were* the sons of Ham, according to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ir languages, in their lands *and* in their nations.

**21 And *children* were born also to Shem, the father of all the children of Eber, the brother of Japheth the elder. 22 The sons of Shem *were* Elam, Asshur, Arphaxad, Lud, and Aram.
23 The sons of Aram *were* Uz, Hul, Gether, and Mash. 24 Arphaxad begot Salah, and Salah begot Eber. 25 To Eber were born two sons: the name of one *was* Peleg, for in his days the earth was divided; and his brother's name *was* Joktan. 26 Joktan begot Almodad, Sheleph, Hazarmaveth, Jerah, 27 Hadoram, Uzal, Diklah, 28 Obal, Abimael, Sheba, 29 Ophir, Havilah, and Jobab. All these *were* the sons of Joktan. 30 And their dwelling place was from Mesha as you go toward Sephar, the mountain of the east. 31 These *were* the sons of Shem, according to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ir languages, in their lands, according to their nations.**

32 These *were* the families of the sons of Noah, according to their generations, in their nations; and from these the nations were divided on the earth after the flood.

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14 바드루심과 가슬루힘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과 갑도림이 나왔더라)

**15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16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19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20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21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23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6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9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30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Review – The table of nations
Today we are going to conclude our study of Genesis chapter 10. I'm sure another week in this

chapter might not be all that appealing to some of you. It is perhaps not one of the most exciting passages of scripture. Let me take you behind the scenes for a moment. A brief glimpse behind the curtain when it comes to sermon planning. I'll be honest with you. I did wrestle with how to handle this chapter. There were three options.

Option one, do it all in one go. That really would have been overwhelming. You'd have needed a strong cup of black coffee to get through that!

Option 2, break the chapter into three parts and devote one sermon to each brother. Not a bad plan, but one that requires stretching a modest amount of material quite thinly.

The third option, the one I opted for was to divide it into two parts. Doing so allows me to give you a nice amount of background information but is not too much to take in. At least I hope it isn't. Anyway, before we continue on with our study let's very briefly recap.

Chapter 10 of Genesis is commonly known as the "Table of Nations." That's a very apt and appropriate title. This is because Moses is giving us a record of the nations that came from the descendants of Shem, Ham and Japheth. Across the chapter we have the names of 70 men who went on to found the nations, tribes or people groups that made up the past flood world. Moses wanted his readers to know that the nations of people that occupied their world all descended from the same family. That's a useful thing for us all to remember.

We live in a world that is frequently divided along ethnic, religious or racial lines. Certain people hate others because of their skin colour, religion, race or culture. How silly and petty these disagreements become when we realise that really we are all family. Externally we may appear different. We have differing skin tones, eye, nose and mouth shapes. We speak different languages and possess our own culture and belief system. But once we go beyond these superficial differences we really are all the same.

The chapter begins by telling us about Japheth and the descendants that came from him. They appear first on the list because the nations his descendants founded were geographically the farthest removed from Israel.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living in The Promised Land these were people from "across the sea." Because of this there would have been little interaction between them. They would have remained "foreign" in every sense of that word.

The bible records 14 names. Seven sons and seven grandsons. Japheth's people went north of the Promised land before splitting into two groups. One group went east into central Asia and the other turned west into Europe. Those heading west would go on to found the nations of Europe.
Those that turned east settled parts of central Asia including India.

We then went on to consider Ham. Ham we are told had four sons. Starting from The Land of Canaan they moved south, east and south west. They would go on to settle throughout Africa, as well as in Palestine, Mesopotamia, Egypt and parts of Arabia. The most notable ancestor of Ham was born to his son Cush. I am referring to Nimrod. Nimrod is singled out due to his significance in post-flood history. He was the bible tells us renowned as being a great hunter. In fact the bible descries him as being a "mighty" hunter on no less than three occasions. As I told you last time this is normally an admirable attribute. Men in the ancient world craved such qualities. Being an able hunter meant you could provide for your family and other dependants. However things are not particularly admirable when it comes to Nimrod. The bible paints him quite accurately as being an authoritarian dictator. Nothing less than a tyrant. He used his charisma and power to not only hunt animals but also to "hunt" men. He strove to bring them into subjugation to him and in doing so to forsake seeking after God.

Nimrod we are also told founded empires and built cities. Among the best known and most

significant of these was Babel in the land of Shinar (Babylonia) and later Nineveh which would go on to be the capital of the Assyrian Empire. So make no mistake Nimrod was a powerful leader in his day.

This was where we finished up last time. Today we will pick up by looking at the sons of Mizraim.

복습 – 민족들의 목록

오늘은 창세기 10 장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10 장을 한 주 더 살펴보는 것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성경 구절은 아니니까요. 잠시 설교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10 장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했는데, 세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0 장 전체를 한 번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테죠. 아마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이 필요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세 형제에 대해 각각 설교하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계획이지만, 세 설교로 나누기에는 주어진 본문 내용에서 각각의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가 선택한 방법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 적절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 장은 흔히 "민족들의 목록Table of Nations"이라고 불립니다. 모세가 셈, 함, 야벳의 후손에게서 나온 여러 민족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제목입니다. 이 장에는 대홍수 이후의 시대를 구성했던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세운 70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는 당시 세상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이 한 가족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인종, 종교, 민족적 차이로 분열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부색, 종교, 인종, 문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러한 갈등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지 알게 됩니다. 피부색, 눈, 코, 입 모양 등 겉모습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 신념 체계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차이점을 넘어서면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한 가족입니다.

10 장은 야벳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게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모든 면에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14 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아들과 일곱 손자입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 북쪽으로 이동한 후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중앙아시아로, 다른 그룹은 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서쪽으로 향한 그룹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건립하였습니다. 동쪽으로 향한 그룹은 인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함에 대해 기록합니다. 함에는 네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남쪽, 동쪽, 그리고 남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전역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아라비아 일부 지역에도 정착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인 니므롯이 함의 아들 구스에게서 태어납니다. 니므롯은 대홍수 이후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됩니다. 성경은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를 세 번이나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자질은 보통 존경받을 만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러한 자질을 갈망했습니다. 유능한 사냥꾼은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므롯은 그다지 존경할 만한 인물

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권위적인 독재자, 폭군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권력을 이용하여 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니므롯이 또한 제국을 건설하고 도시를 세웠다고 언급합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중요한 도시는 시날(바빌로니아) 땅에 건설한 바벨과, 이후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된 니느웨가 있습니다. 니므롯은 당대에 매우 강력한 지도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미스라임의 자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 Mizraim begot Ludim, Anamim, Lehabim, Naphtuhim, 14 Pathrusim, and Casluhim (from whom came the Philistines and Caphtorim).

We continue on here looking at the Hamite family line. The descendants of Ham. Last time we concluded with Nimrod. Moses tells us about the six sons that were born to Mizraim. As you may remember Mizraim is connected with Egypt. The name 'Egypt' in Hebrew is *mitsrayîm.* In some bible translations the name "Mizraim" is even rendered as "Egypt" (ESV, NIV). You will also notice that each of the names listed ends in the suffix "im." In other places in the genealogy we see "ites." In each case it is referring to a people group, tribe or a clan. Let me give you a contemporary example. My home town in the UK is called Bromsgrove. The collective noun for people from my home-town town is Bromsgrovian.

Let's look at each son in turn. I should point out before we dive in that biblical scholars are far from agreed on where some of these men settled and founded nations. So opinions vary. I consulted several sources in preparing this and am reporting the findings of reputable conservative scholars.

The first name mentioned is **Ludim**. There is some disagreement over where this son settled. Some argue for Lidya on the western part of modern-day Turkey. Lydia's great claim to fame is that metal coins were invented there. However others make the case for Ludim being the ancestor of a North African people group. This is because the Bible associates Ludim with both Cush (upper Egypt) and Put (Libya or north Africa - see Jer 46:9 and Ez 30:5).

The next son born to Mizraim was **Anamim.** Again there is little consensus on which nation or nations Anamin founded. Some see links with Cyrene on the coast of Libya.

The next name in the list is **Lehabim.** His name means "flaming." He is linked with either Egypt or Libya**.**

Next up we have **Naphtuhim**. His descendants might be the people of Memphis, the capital of Lower Egypt, near the Nile Delta.

The fifth son **Pathrusim.** He is believed to have settled in Upper Egypt in the land of Pathros.

The sixth and final son born to Mizraim was **Casluhim.** It is thought that his people settled in the area west of the Delta between Egypt and Canaan. The Philistines latter occupied this region. But this was not their original homeland. **Caphtor** and his tribal group (**Caphtorim**) are connected with the island of Crete. The biblical authors remembered the Philistines as coming from a foreign land, from "Caphtor" (Deut 2:23; 1 Chronicles 1:12). They were referred to as the "the Sea Peoples."

Let us turn next to consider the sons of Canaan.

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14 바드루심과 가슬루힘을 낳았다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과 갑도림이 나왔다라)

이 구절에서 함의 후손에 대해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니므롯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모세는 미스라임에서 태어난 여섯 아들에 대해 말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와 관련이 있는데, '이집트'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mitsrayîm)* 입니다. 일부 성경 번역본에서는 '미스라임을 '이집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ESV, NIV). 또한 나열된 이름들

이 모두 '임(im)'이라는 접미사로 끝납니다. 족보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테스(ites)'라는 접미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접미사들은 모두 민족, 부족을 가리킵니다. 현대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제 고향은 브롬스그로브 Bromsgrove 이고, 제 고향 사람들을 가리키는 집합 명사는 브롬스그로비안(Bromsgrovian) 입니다.

이제 각각의 아들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들이 어디에 정착하여 어떤 나라를 세웠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참고했으며, 저명한 보수적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루딤Ludim** 입니다. 그가 어디에 정착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터키 서부에 있는 리디아라고 주장합니다. 리디아는 금속 동전이 발명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이들은 루딤이 북아프리카 민족의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루딤을 구스(이집트 상부)와 풋(리비아 또는 북아프리카 - 예레미야 46:9, 에스겔 30:5 참조) 과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미스라임의 다음 아들은 **아나밈Anamim** 입니다. 아나밈이 어떤 나라를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리비아 해안의 키레네Cyrene 와 연관짓습니다.

다음은 **르하빔Lehabim** 입니다. 그 이름은 "불타는flam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집트 또는 리비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납두힘Naphtuhim** 입니다. 그의 후손은 나일강 삼각주 근처 이집트 하부 지역의 수도 멤피스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 **바드루심Pathrusim** 은 이집트 상부의 파트로스Pathros 땅에 정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스라임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아들은 **가슬루힘Casluhim** 입니다. 그의 후손은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삼각주 서쪽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했지만, 이곳은 그들의 원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갑도림Caphtor** 과 그의 부족(갑도림**Caphtorim**)은 크레타 섬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갑도르"라는 이방 땅에서 왔다고 언급합니다(신명기 2:23; 역대기상 1:12). 그들은 "바다 민족the Sea Peoples"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음으로 가나안의 후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5 Canaan begot Sidon his firstborn, and Heth; 16 the Jebusite, the Amorite, and the Girgashite; 17 the Hivite, the Arkite, and the Sinite; 18 the Arvadite, the Zemarite, and the Hamathite. Afterward the families of the Canaanites were dispersed.

Verses 15 to 18 focus on the sons born to Canaan. He you will remember was the man whom Noah cursed following the dishonouring behaviour of his father Ham. Canaan's descendants all fell under Noah's curse. Canaan we read fathered eleven sons. They would all go on to lead tribal groups that inhabited the Land of Canaan (The Promised Land).

The firstborn son was **Sidon.** His people settled in Phoenicia. The bible speaks on a number of occasions of the city of Sidon. It's often connected with nearby Tyre. This region for obvious reasons became known as the land of the Sidonians.

The second son was **Heth**. He was the father of the Hittites who originally occupied the hill country of Judah. They are noteworthy because they developed iron smelting. This enabled them to make cutting edge weaponry. They were also famed for their formidable iron chariots. They were the tanks of the ancient battlefield. Due to their superior weapons they were able to create a powerful empire. However, as we all know empires have their time in the sun before they fade away. After the fall of the Hittite Empire in the 13th century BC the Hittites migrated East. Some believe that

they became known as the "Cathay people" today associated with Hong Kong. Others completely disagree and think there is no connection.

The third son is the **Jebusite** who inhabited the area that is today occupied by Jerusalem. This people group built the original city which they called Jebus (*Yevus* in Hebrew). It was this city which King David later conquered and made his capital (2 Samuel 5:6–9).

The fourth son named is the **Amorite.** The Amorites also occupied the Hill Country of Judah at one time (Num. 13:29, Deut. 1:44). Mamre (Gen. 14:13), and Shechem, captured from the Hivites were both Amorite cities They also occupied the east side of the Jordan river. The most famous Amorite was probably Hammurabi. He was the founder of the Babylonian Empire.

He is famous for the Code of Hammurabi inscribed on a basalt stele 2.25 m tall. You can see this stele in the Louvre in Paris. The Code comprises a set of 282 laws with harsh punishments applied to law breakers. Allow me to give you a couple of examples.

If a man was to strike a pregnant woman and she and her child died as a result the man's daughter would be executed. If a builder builds a house badly and it falls and kills the owner's son, then the builder's son would be executed (229–230). This is of course contrary to biblical law,

20 The soul who sins shall die. The son shall not bear the guilt of the father, nor the father bear the guilt of the son. The righteousness of the righteous shall be upon himself, and the wickedness of the wicked shall be upon himself. (Ezekiel 18:20)

Back to our account. The fifth son is the **Girgashite**. This name is found in Phoenician Texts and in the Egyptian Inscriptions of Ramses II. They appear to be have settled in the land of the Gerasenes (Luke 8:26). This means they originally settled in the area around the Sea of Galilee.

The sixth group mentioned is the **Hivites**. They occupied the central Hill Country of Judah, north of Jerusalem, including the city of Gibeon (Josh. 9:3-7, 9:17; 11:19).

The seventh name on the list is **Arkite.** They occupied Tel Argoh in what is modern-day Lebanon but was once Phoenicia.

The eighth group was the **Sinites**. They made up a city-state located on the coast between Ugarit and Arvad. Some have identified the Sinites with China. In Modern Hebrew this word is used of China.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at was the meaning in Classical Hebrew. If however this connection is right, then this branch of the Canaanites seemed to retain knowledge of the one true God.

The most ancient Chinese script written on oracle bones, indicates that they knew of many of the events of Genesis. For example the Chinese character for ship, 'chuan' comprises three symbolic representations. One symbol means vessel, another represents eight and the third means people. As we all know God saved eight people on a vessel; the ark.

The ninth group of descendants from Canaan was the **Arvadites**. They settled on an island called Arvad or Arwad. This island lies about 3 km from Tartus, Syria's second largest port.

The tenth group is known as the **Zemarites.** They are believed to have settled in the northern part of Egypt on the border between Egypt and the Land of Canaan.

The eleventh son was the **Hamathite**. These people probably founded the city Hamath on the banks of the Orontes River in west-central Syria.

In verse 18 we read that after these tribal groups had settled in their respective areas there was some kind of dispersion. These groups spread out or expanded into other areas.
Let us continue and discover the extent of the Land of Canaan.

15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16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15-18 절은 가나안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나안은 아버지 함의 치욕스러운 행동 때문에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모두 노아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의 아들 열한 명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각 부족을 이룹니다.

맏아들은 **시돈Sidon** 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페니키아에 정착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시돈이란 도시를 언급하는데, 이 도시는 인근에 있는 두로Tyre 와 자주 연관됩니다. 이 지역은 당연한 이유로 시돈인들Sidonians 의 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헷Heth** 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산악 지대에 살게 된 헷 족속Hittites 의 조상입니다. 헷 족속은 철 제련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고, 고대 전쟁터에서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강력한 철제 전차를 제작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헷 족속들은 우월한 무기 덕분에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전성기를 누리다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기원전 13 세기에 히타이트 제국Hittite Empire 이 멸망한 후, 그들은 동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오늘날 홍콩과 관련된 "카타이 사람들Cathay people" 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들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여부스**였고 오늘날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여부스Jebus (히브리어로는 *예부스 Yevus*)라는 이름의 도시를 건설했었는데, 다윗 왕이 이 도시를 정복하였고 수도로 삼았습니다(사무엘하 5:6-9).

넷째 아들은 **아모리**입니다. 아모리 족속**Amorite** 역시 한때 유다 산악 지대를 차지했습니다(민수기 13:29, 신명기 1:44). 히위 족속Hivites 에게서 빼앗은 마므레(창세기 14:13)와 세겜은 아모리 족속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요르단 강 동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아모리 족속 인물은 아마도 함무라비Hammurabi 일 것입니다. 그가 바로 바빌론 제국의 창시자였습니다.

함무라비는 높이 2.25m 의 현무암 비석에 새겨진 함무라비 법전the Code of Hammurabi 으로 유명합니다. 이 비석은 오늘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282 개의 법률이 있으며, 법을 어긴 자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임신한 여자를 때려 그녀와 아이가 죽었다면, 그 남자의 딸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건축업자가 집을 잘못 지어 집이 무너져 주인의 아들이 죽었다면, 건축업자의 아들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229-230 항). 이런 법률은 성경의 율법과는 상반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길,

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20)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섯째 아들은 **기르가스Girgashite** 입니다. 이 이름은 페니키아 문헌과 람세스 2 세의 이집트 비문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거라사인Gerasenes 땅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누가복음 8:26), 그 땅은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히위** 족속**Hivites** 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북쪽, 기브온을 포함한 유다 중앙 산악 지대에 거주했습니다(여호수아 9:3-7, 9:17; 11:19).

일곱 번째는 **알가** 족속**Arkite** 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텔아르고Tel Argoh 를 차지했는데, 이곳은 한

때 페니키아 영토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신** 족속**Sinites** 입니다. 그들은 우가리트와 아르바드 사이 해안에 도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신 족속을 중국과 동일시합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중국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어에서도 같은 의미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연관성이 옳다면, 가나안의 이 후손들은 유일신에 대한 지식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오래된 중국의 상형 문자인 갑골문자on oracle bone scripts 를 보면 그들이 창세기의 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배를 뜻하는 한자 '선 船'은 세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 다른 하나는 여덟,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덟 사람을 배, 즉 방주에 태우고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아홉 번째 자손은 **아르왓** 족속**Arvadites** 입니다. 그들은 아르밧 또는 아르왓이라는 섬에 정착했습니다. 이 섬은 시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인 타르투스에서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열 번째는 **스말** 족속**Zemarites** 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경계인 이집트 북부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한 번째 아들은 **하맛** 족속**Hamathite** 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시리아 서중부의 오론테스 강변에 하맛이라는 도시를 세웠을 것입니다.

18 절에서 이 족속들이 각자의 지역에 정착한 후에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점차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규모를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9 And the border of the Canaanites was from Sidon as you go toward Gerar, as far as Gaza; then as you go toward Sodom, Gomorrah, Admah, and Zeboiim, as far as Lasha.

This verse describes in loose terms the borders of the Canaanites at this particular time. The description of this territory will become important later in Israel's history. God will give the region of the Canaanites to the people of Israel. It is to become the Promised Land (Exodus 3:17). The bible details how Israel conquered its peoples, and took possession of the land and its cities.

Some of the Canaanite clans listed in the previous verses would be wiped out; others would become servants to God's people. This is partly due to the curse Noah levied against Canaan in Genesis chapter 9. It is also due to the extraordinary evil which Canaan's descendants partook.
Be under no illusion they were a wicked and perverse people.

Let us continue.

19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 구절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영토 경계를 대략 기록합니다. 이 영토에 대한 묘사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며, 그곳은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출애굽기 3:17). 성경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거주민들을 정복하고 그 땅과 성읍들을 차지했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앞 구절에 언급된 가나안 족속들 중 일부는 멸절되었고, 일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창세기 9 장에서 노아가 가나안에게 내린 저주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후손들이 저지른 극심한 악행 때

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사악하고 타락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 These *were* the sons of Ham, according to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ir languages, in their lands *and* in their nations.
This then brings to an end the description of Ham and his descendants. We can take a deep breath before we move on and look at the final son, Shem.

20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로써 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한 다음에 마지막 아들 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 And *children* were born also to Shem, the father of all the children of Eber, the brother of Japheth the elder. 22 The sons of Shem *were* Elam, Asshur, Arphaxad, Lud, and Aram.

The narrative now moves to the "Seed son," Shem. As I said in a previous sermon his seed line is purposefully reserved until the end. This is because of its significance. Shem's line is the one that will lead eventually to Abraham and the Israelites. This is why Eber is highlighted here. In Hebrew his name is *Ever.* It is the source for the word "Hebrew," (*Ivrit)*. To be the father of the Hebrews is the main significance of the line of Shem.

However the seed line of promise would flow only through Arphaxad's line. This is the messianic line which will be detailed in chapter 11.

Let's look at the five sons born to Shem.

Shem's first son was **Elam.** He was the ancestor of the Elamites. They lived in an area east of Babylon, in what was later called Persia. Today that is modern-day Iran. Their capital was Susa or Shushan.

Next up is **Asshur.** He was the ancestor of the Assyrians.
The third son is **Arphaxad**. Josephus identified him with the Chaldeans. Others identify him with the Araphu in the area of Nuzi. Others think he settled somewhere in either Babylon or Assyria. He was, as I mentioned before to be a seed-son.

Shem's fourth son was **Lud.** He is associated with the Assyrians in the area of Nuzi. This location is thought to be the Lydia of Asia Minor.

Shem's fifth son was **Aram**. His name corresponds with the land of Aramea between Damascus and the Euphrates River. Aram was the common Hebrew name for Syria.

Let's continue on as we look at the sons of Aram.

21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제 이야기는 "약속의 아들Seed son" 셈으로 넘어갑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셈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이는 그 중요성 때문입니다. 셈의 계보는 결국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벨Eber 이 여기서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에벨Eber 의 히브리어 이름은 *에베르(Ever)* 이고, 이 이름이 "히브리"Hebrew, *(Ivrit)* 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셈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의 계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족보는 오직 아르박삿의 계보를 통해서만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족보이며, 11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셈이 낳은 다섯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셈의 첫째 아들은 **엘람Elam** 입니다. 그는 엘람인Elamites 의 조상입니다. 엘람인들은 바빌론 동쪽, 훗날 페르시아라고 불리게 된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수도는 수산(Susa 또는 Shushan)이었습니다.

다음은 **앗수르Asshur** 입니다. 그가 아시리아인Assyrians 의 조상입니다.

셋째 아들은 **아르박삿 Arphaxad** 입니다. 요세푸스는 그를 갈데아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누지Nuzi 지역의 아라푸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바빌론 또는 아시리아 어딘가에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가 약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셈의 넷째 아들은 **룻Lud** 입니다. 그는 누지 지역의 아시리아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의 리디아로 추정됩니다.

셈의 다섯째 아들은 **아람Aram** 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마스쿠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아람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람은 시리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아람의 아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3 The sons of Aram *were* Uz, Hul, Gether, and Mash.
Moses lists for us the four sons of Aram. Collectively they are believed to have founded the Syrian tribes located between Aramea and Mesopotamia. Little is known with any certainty about these men. So I am quoting mostly from the writings of Jospehus.

The first born son was **Uz**. The Jewish historian Josephus claims he made his home in northeastern Canaan or what was the northwest edge of Mesopotamia (Gen. 22:21). This may well have been where Job came from (Job 1:1). Uz's territory may also be the same as the land of Uz mentioned in Jeremiah (25:20).

The second son was **Hul**. Historians such as Josephus say he settled somewhere in Armenia although this is disputed.

The third son was **Gether**. His specific location is unknown. Josephus puts him in Bacteria, in northeastern Afghanistan.

The fourth son was **Mash**. His specific location is also unknown, but there is a strong case for saying he settled near Mesene at the mouth of the Euphrates River near Charax.

Let us move now to look at the sons who came from the line of Arphaxad.

23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모세는 아람의 네 아들을 나열합니다. 이들은 함께 아람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위치한 시리아 부족을 세웠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인용하겠습니다.

맏아들은 **우스Uz** 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가나안 북동부, 즉 메소포타미아 북서쪽 끝자락에 정착했다고 주장합니다(창세기 22:21). 이곳은 욥의 고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욥기 1:1). 우스의 영토는 예레미야에 언급된 우스의 땅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25:20).

둘째 아들은 **훌Hul** 이었습니다.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가들은 그가 아르메니아 어딘가에 정착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게델Gether** 이었습니다. 그의 정확한 정착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는 그가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의 박테리아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넷째 아들은 **마스Mash** 였습니다. 그의 정확한 거주지는 모르지만, 유프라테스 강 어귀인 메세네 근처, 카락스 인근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아르박삿의 후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4 Arphaxad begot Salah, and Salah begot Eber.

We come next in the listing to the sons born to Shem who were in included in the seed line of promise. This makes them of huge importance even though we know little or nothing about them personally.

The first name mentioned here is **Arphaxad**. Interestingly, this is not his only mention in scripture. In Genesis 11 we learn a little more about him. We know that he was born to Shem two years after the end of the great flood. Shem was 100 years old at this time. At the relatively young age of 35 Arphaxad became the father of Salah. After having Salah he lived for a further four hundred and three years, and during this time had additional sons and daughters (Gen 11:10-13). Arphaxad is also mentioned in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Apostle Luke includes Arphaxad in the lineage of Christ (Luke 3:36). As to where Arphaxad and his clan settled little is known for certain. He is most commonly associated with the region of the Chaldeans, suggesting a possible link to the ancient Mesopotamian culture.

Arphaxad's first born son was **Salah**. In chapter 11 of Genesis we are given a little more information regarding Salah. We are told that at the age of thirty he fathered Eber. Following this he lived for a further four hundred and three years. During this time he also produced additional sons and daughters none of whom are named. He is also included in Luke's genealogy (Luke 3:35-36).

The third son in the seed line of promise is **Eber**. Once again Genesis 11 provides a little more background on Eber. He was 34 when he fathered the first of two named sons. This son was Peleg who we will look at shortly. After having Peleg Eber lived for a further 430 years. His name is interesting for another reason. It is believed that Eber was the origin for the name “Hebrew.” This was originally a racial term used by Israel's neighbours to refer to God's people.

Let us read on.

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제 셈의 아들들 중에서 약속의 자손들의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이들은 매우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름이 **아르박삿**입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이름이 이 성경 구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 장에서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홍수가 끝난 지 2 년 후에 셈에게서 태어났으며, 당시 셈의 나이는 100 세였습니다. 아르박삿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35 세에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는 셀라를 낳은 후 403 년을 더 살면서 여러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창세기 11:10-13). 아르박삿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사도 누가가 아르박삿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합니다(누가 3:36). 아르박삿과 그의 후손들이 어디에 정착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주로 갈데아 지역과 관련되어 있고,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와의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아르팍삿의 맏아들은 **셀라Salah** 였습니다. 창세기 11 장에 셀라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가 서른 살에 에벨을 낳았고, 그 후 403 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 또한 누가복음의 그리스도 족보에 등장합니다(누가복음 3:35-36).

약속의 자손 계보에서 세 번째 아들은 **에벨Eber** 입니다. 창세기 11 장에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는 서른네 살에 이름이 기록된 두 아들 중 첫째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곧 살펴볼 벨렉입니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후 43

0 년을 더 살았습니다. 에벨이란 이름이 또한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히브리인Hebrew"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이란 용어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인종적 용어였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5 To Eber were born two sons: the name of one *was* Peleg, for in his days the earth was divided; and his brother's name *was* Joktan.

As we noted a moment ago the first of Eber's first two sons was **Peleg**. The name "Peleg" means "to divide." This is most appropriate, in fact some even suspect he was given this name following a particular event. This is because we are told here that in his days the earth was "divided." This verse has intrigued and fascinated bible readers and scholars for centuries. The question it raises is, in what way was the earth divided? There are two main theories.

The first theory proposes that the divide refers to a physical event that took place at this time. The earth's tectonic plates moved and the continents broke apart. This resulted in new land masses or continents being formed. It is an event known as the continental drift or divide.

The second and I think preferable theory is that it is referring to the language divide that took place during the Tower of Babel judgement. The fact that people could no longer communicate led to a splitting and division as each language group found their own place to settle.

This means that Peleg was alive at the time that God removed the single universal language and gave every tribe and nation it's own distinct tongue.

We then learn that Eber's next son was **Joktan**. He would go on to have thirteen sons. Let's read about them now.

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의 첫째 아들은 **벨렉Peleg** 이었고, "벨렉"의 의미는 "나누다to divide" 입니다. 이는 매우 적절한 이름인데, 어떤 이들은 그가 어떤 특정한 사건 이후에 이 이름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수 세기 동안 성경 독자와 학자들의 흥미를 자극해 왔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이 당시 일어난 자연 현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대륙이 분리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대륙 이동설 또는 대륙 분할설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두 번째이자 제 생각에 더 타당한 이론은 바벨탑 심판 당시 언어가 나뉘었던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자,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끼리 자신들만의 정착지를 찾아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의 보편적인 언어를 없애고 각 지파와 민족들에게 고유한 언어를 주셨을 때 벨렉이 살아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에벨의 두 번째 아들이 **욕단Joktan** 이었고, 그는 열세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26 Joktan begot Almodad, Sheleph, Hazarmaveth, Jerah, 27 Hadoram, Uzal, Diklah, 28 Obal, Abimael, Sheba, 29 Ophir, Havilah, and Jobab. All these *were* the sons of Joktan. 30 And their dwelling place was from Mesha as you go toward Sephar, the mountain of the east.

Not a great deal is known about either Joktan and his offspring. This, as I have said before is

because they branch off from the seed line of promise which flows through Peleg's line. This means that in biblical terms they are of only minor importance. In fact in Hebrew the name “Joktan” is pronounced *yoqtān* and appears to be related to a word meaning “small, young or unimportant.” But, they are included in God's revelation so that makes them worthy of mention. All of them seem to have some connection to Arabia or other nearby regions. Let's briefly run through them and as best we can pinpoint a possible location for them.

The first son mentioned is **Almodad**. He was probably the ancestor of the Al-Murad tribe in South Yemen.

Next up we have **Sheleph.** He could be the ancestor of the Salipeni. They originally occupied a region in what is now part of Yemen and Oman.

Son number three is **Hazarmaveth.** He probably settled in the Hadhramaut region located in central Yemen on the Gulf of Aden.

The next son named is **Jerah.** He is possibly connected to the fortress of Jerach again located in the Hadhramaut region.

Son number five is **Hadoram**. He was the founding father of the Adramitae tribe. They were famous for trading in cinnamon and other spices.

Son six is **Uzal**. He gave his name to the ancient city of Azal. It has since been renamed as Sana’a and is the capital of modern-day Yemen.

Next in line is **Diklah.** It is believed that he and his people may have settled in the Dakalah region, which roughly corresponds to the northern Hejaz region of Saudi Arabia on the coast of the Red Sea.

We come next to son number eight, **Obal.** There may be some link between his tribal people and Abil in the Hadhramaut region.

Next up is **Abimael.** Sadly nothing is known about him or his descendants.

Sheba is son ten. He may have shared responsibility with the Sheba and Seba of Ham’s line for the Sabean people. Henry Morris believes they eventually settled somewhere in Arabia.

Son number eleven is **Ophir.** His territory could have become Aphar, which classical texts called ‘metropolis of the Sabeans.’

Next up is **Havilah.** This is another name that was duplicated in Ham’s line (Gen 10:7). They may have settled in the north of Yemen.

Finally, we have **Jobab.** He and his people were possibly the ancestors of the Jobarites of southern Arabia.

With the list of sons complete Moses goes on to give us a summary statement. Verse number 30 describes the geographical territory occupied by the various groups of people descended from Joktan. Unfortunately scholars are uncertain as to what places the names Mesha and Sephar represent. The best we can do is to say that Joktan and his sons were the ancestors of numerous Arabian people groups.

Let us continue.

26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9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30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욕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벨렉의 계보를 통해 흐르는 약속의 자손 계보에서 갈리졌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그다지 중요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욕단"은 *yoqtān* 으로 발음되며, "작은, 어린, 또는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라비아나 그 주변 지역과 연관이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능한 한 그들의 정착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알모닷Almodad** 입니다. 그는 아마도 남예멘의 알무라드Al-Murad 부족의 조상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셀렙Sheleph** 입니다. 그는 살리페니족Salipeni 의 조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현재 예멘과 오만의 일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하살마웻Hazarmaveth** 입니다. 그는 아마도 아덴 만에 접한 예멘 중부의 하드라마우트 Hadhramaut 지역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다음 아들은 **예라Jerah** 입니다. 그 역시 하드라마우트 지역에 있는 예라흐Jerach 요새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째 아들은 **하도람Hadoram** 입니다. 그는 아드라미티이 부족Adramitae 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계피와 다른 향신료 무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여섯 째 아들은 **우살Uzal** 입니다. 그는 고대 도시 아잘Azal 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도시는 이후 사나 Sana'a 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오늘날 예멘의 수도입니다.

다음 아들은 **디글라Diklah** 입니다. 그와 그의 부족은 홍해 연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헤자즈 지역에 해당하는 다칼라 지역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아들 **오발Obal** 입니다. 그의 부족은 하드라마우트 지역의 아빌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아들은 **아비마엘Abimael** 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그의 후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열 번째 아들은 **스바Sheba** 입니다. 그는 함의 후손인 스바와 함께 사바인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헨리 모리스는 그들이 결국 아라비아 어딘가에 정착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열한 번째 아들은 **오빌Ophir** 입니다. 그의 영토가 고대 문헌에서 '사바인의 수도라고 불렸던 아파르Aphar 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아들은 **하윌라Havilah** 입니다. 이 이름도 함의 후손과 중복되는 이름입니다(창세기 10:7). 그들은 예멘 북부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밥Jobab** 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남부 아라비아의 요바족Jobarites 의 조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한 후 요약적인 설명을 이어갑니다. 30 절은 욕단의 후손으로부터 생겨난 여러 민족들이 차지했던 지리적 영역을 묘사합니다. 안타깝게도 학자들은 메사와 스발이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욕단과 그의 아들들이 수많은 아라비아 민족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 These *were* the sons of Shem, according to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ir languages, in their lands, according to their nations.

Verse number 31can be classified as summary verse for Shem. We saw similar verses for both been Japheth (verse 5) and Ham (verse 20). Once again Moses mentions that Shem's descendants split into distinct units. These divisions were based on family, language and territory. Each of these divisions of tribes or people groups went on to form nations. The record shows that 26 nations came from Shem's descendants, 30 came from Ham and 14 arose from Japheth. When added together that gives us the 70 names (nations) that make up the table of nations.

Although the account we have looked at details events that took place thousands of years ago the divisions that separated those initial nations still exist today. For all our progress and development little has changed. Although we share a common ancestor in Noah we still choose to live in distinct nation or ethnic groups. Those different to ourselves make us uneasy or uncomfortable. Though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s is common it is still the case that racism and hatred exists. Our in-group tribal preferences are hard to break. We are further divided because we do not share a common language, culture, politics or religion. Misunderstandings abound due to our inability to convey our feelings properly. God's Word tells us that it has been this way since the time of Noah.

Let u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and the chapter by looking at the following verse.

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라

31 절은 셈의 후손에 대한 요약 구절입니다. 야벳(5 절)과 함(20 절)에 대해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셈의 후손들이 족속, 언어, 영토를 기준으로 여러 민족으로 나뉘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부족 또는 민족 집단들이 각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셈의 후손에서 26 개 민족이, 함의 후손에서 30 개 민족이, 야벳의 후손에서 14 개 민족이 나왔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70 개 민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70 개 민족들의 목록입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 구절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지만, 초기 민족들을 나누었던 구분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동안의 발전과 진보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라는 조상을 공유하지만, 여전히 각기 다른 민족이나 집단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민족 간의 교류와 협력이 흔하게 일어나지만, 인종차별과 증오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공통된 언어, 문화, 정치, 종교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분열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이 노아 시대부터 이어져 왔다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와 10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2 These *were* the families of the sons of Noah, according to their generations, in their nations; and from these the nations were divided on the earth after the flood.

The chapter and indeed the table of nations concludes with this verse. All the nations came into existence through Noah and then his three sons. After the flood, and more significantly after the events at Babel the nations split and spread around the world. This was Gods' plan.

We are reminded again that every human being born since this time is connected to Noah through one of his three sons.
The precise order or structure of this entire chapter also reveals something significant about God's character. The God we love and serve works in an ordered or systematic way. Many pagan myths and legends concerning the birth of the nations refer to their emergence out of chaos and disorder. The truth as revealed in God's Word is quite the opposite. The God of the bible is a God of order and design.

Next week Lord willing we are going to begin chapter 11 and look at the account of the tower of

Babel.

32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 장과 민족들의 목록은 이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민족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홍수 이후, 더 중요하게는 바벨탑 사건 이후 민족들은 나뉘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시점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명을 통해 노아와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0 장 전체의 정확한 순서와 구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 있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민족들의 탄생에 관한 많은 이교도 신화와 전설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민족들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질서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음 주에는 11 장을 시작하여 바벨탑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drawn two lessons from today's study.

오늘 연구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Everyone is important

The worst things to say, or convey to someone is that they are not wanted or are irrelevant. That, for whatever reason they are not valued or appreciated. Children who are neglected or abused as infants or who grew up in institutions or the foster care system often struggle all their lives to handle this rejection. They can never overcome these feelings of being unwanted.

As we looked at the 70 names in the table of nations there were a few on the list about which little to nothing is known. We are left to speculate. Perhaps they went out into the desert regions of Arabia and built towns or settlements that have long since been swallowed up by the sand. All that anyone remembers is the name of the founding father. But that's not really the complete picture.

It may be true that the history books contain no records of these men. But those people were significant and important in their time. They were precious to God and we can only guess at how He used them. We know for example that some of them carried and passed on the truth about who God is and what He did in history. This alone gives them worth and value.

The same can be said of most of us. Will we leave a permanent mark upon history? Possibly, but it's unlikely. In a few generations all memory of us will be gone. But that does not make us unimportant or irrelevant. We have been given a brief period of time in which to live and serve. We share that period with others. Just like with our distant ancestors our purpose is clear. In the time we have been given we are to devote ourselves to the Lord and to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Let us remember that everyone is important and let us treat them accordingly.

1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끔찍한 말은,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존재이거나 하찮은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이 가치 없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유아기에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아이들, 또는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평생 이러한 거부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는 존재였다는 느낌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70 개 민족의 이름 중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나라들이 몇몇 있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했지만, 그 곳들이 오래전에 모래에 묻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단

지 건국 조상의 이름만 기억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 이야기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역사책에 그들에 대한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대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단지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은 가치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 어떤 영구적인 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 우리에 대한 모든 기억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거나 무의미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짧지만 살아가면서 섬길 수 있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먼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2 Despite the differences we all share one need

There is a fascinating website I recently discovered called “worldometer.” It tracks live, and in real time the world's changing population. I do not know how accurate the counter is because people are being born and dying across the globe every minute of the day and night. But it was fun to watch it running for a while. According to worldometer the world's population currently stands at around 8.2 billion. That's a lot of people spread around the globe living in different places and sharing their own languages, culture, religions and beliefs.

The truth is that despite those differences all people share at least two things in common. The first is that they can all trace their lines of descent back to either Shem, Ham or Japheth. Isn't that an astounding thought.

The second thing that all people share is a need for a saviour. Without Christ they are without hope. No system devised by man no matter how thorough or well thought out will suffice. Without placing their faith and trust in the Lord Jesus they will be lost. Our salvation, lest we ever forget comes through Christ and Christ alone. Fortunately, salvation is not limited or bound by nations, languages or culture. Christ's love transcends all those things. He came to save the world.

We know that to be the case. Here in this room we have people from Korea, Canada, America, the UK and South Africa. A diverse group united in our love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So the call today, as it is everyday is that we put aside our petty dislikes prejudices and disagreements. That we recognise that all people no matter what they look like, sound like or believe all need Jesus. Our job is to introduce them to Him.

2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우리 모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월드오미터(Worldometer)"라는 흥미로운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 인구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전 세계에서 매 순간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이 카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살펴보는 것은 재미있었습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는 약 82 억 명입니다. 지구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각기 다른 언어, 문화, 종교, 신념을 공유하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조상은 셈, 함, 또는 야벳 중 한 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둘째,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게 고안해낸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 믿음과 신뢰를 두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다행히도 구원은 국가, 언어, 문화에 제한되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포함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사소한 불만, 편견, 의견 차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 말투, 믿음이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